

GWANGJU

FOOTBALL CLUB

August 2015 / NO. 04

MONTHLY MAGAZINE

www.GWANGJUFC.com



NEWS

- WELCOME TO GWANGJU
- 3년 만에 국가대표 배출한 광주와 이찬동의 동행
- GK 최봉진의 합류, 골키퍼 경쟁에 불 지폈다
- 기대될 수밖에 없는 광주의 브라질 삼각편대

Hyundai Oilbank  K LEAGUE CLASSIC 

08월 12일 (수) 19:00



전남

08월 19일 (수) 19:00



대전

08월 23일 (일) 19:00



제주

08월 29일 (토) 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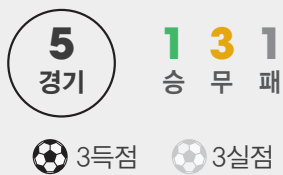
울산

RETURN JULY, GWANGJU

지난 7월 한 달간의 광주 FC를 되돌아봅니다. 광주는 7월에 지옥의 원정 10연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전을 시작으로 포항 스틸러스 전까지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승률 50%를 유지했습니다. 꾸준히 승점 쌓기에 성공한 광주는 23라운드까지 8위에 위치하며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원정 10연전을 마감하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고 안방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FC 7월 성적

1승 3무 1패 / 3득점 3실점



7월 01일 19R

인천 1 : 0 광주

올해 두 번째 연패에 빠진, 아직도 아픔과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광주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62:38의 점유율을 점하며 경기를 압도하고 또 압도했다. 하지만 전반 35분 빠른 실수 하나가 광주를 놔주지 않았다. 수비 진영에서 패스 실수로 인천 공격수 케빈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했다. 이것이 곧 결승골로 연결됐다. 광주는 후반전에 김호남을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고, 수비수 오도현을 공격수로 투입했으나 패배를 바꾸진 못했다.

7월 05일 20R

서울 1 : 1 광주

체력적인 문제가 점점 더 광주를 옥죄어왔다. 그럼에도 FC 서울 원정에서 광주는 전반 26분 이종민이 PK 득점에 성공하며 리드를 잡았다. 페널티킥을 얻는 과정에서 송승민의 날카로운 스루패스와 주현우의 절묘한 침투가 돋보였다. 광주가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했으나 4분 뒤, 서울 윤일록에게 실점했다. 후반전에 광주는 서울 공세에 밀리며 점유율까지 내줬다. 이에 남기일 감독은 오도현과 정준연을 투입해 수비를 더 강화했고 승점 1점을 얻는 데 만족했다.

7월 08일 21R

전북 1 : 1 광주

광주는 1위 전북 현대를 상대로 주눅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한 플레이를 펼쳤다. 그래도 전북은 강한 상대였다. 후반 6분 이주용이 득점을 터뜨렸다. 레오나르도와 에두를 차례로 투입한 전북의 공격이 더 매서워졌다. 하지만 광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역시 베테랑은 큰 경기에 강했다. 이요셉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조용태가 감각적인 슈팅으로 동점 골을 만들었다. 승리하진 못했으나 값진 승점 1점을 더 추가했다.

7월 11일 22R

울산 0 : 1 광주

원정 9번째 경기를 위해 울산으로 이동했다. 승리의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는 시점이었다. 마침, 상대는 울산 현대였다. 지난 4R 맞대결에서의 패배를 갚을 기회이기도 했다. 광주는 전반 17분 만에 김호남이 울산의 골망을 가르며 기세를 쥐었다. 이후 울산의 파상공세가 펼쳐졌다. 높이를 앞세운 공격과 소나기 슈팅을 날렸다. 그럴수록 광주 수비는 더 견고해졌다. 7경기 만에 승리하기 위한 선수들의 몸을 날리는 투혼이 광주의 승리를 이끌었다.

7월 25일 23R

포항 0 : 0 광주

울스타전 브레이크 기간으로 인해 2주간의 휴식을 취한 뒤, 모처럼 원정을 떠난 광주였다. 이날 경기는 특별했다. 광주 원정 10연전의 종착지였다. 앞선 울산전에서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고 체력도 충전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실전 경기를 치른 탓이었을까. 공격 전개에서 정교함이 떨어졌다. 실수도 잦았다. 다행인 건 실점은 없었다. 신에 골키퍼 최봉진이 슈퍼세이브를 펼치며 등장했다. 공격수 카시아노 또한 저돌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다.

WELCOME TO GWANGJU

광주 FC가 안방인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돌아온다. 광주는 지난 7월 25일(토) 포항 스틸러스와의 23라운드 경기를 끝으로 원정 10연전을 마감했다. 무려 두 달 동안 지옥의 일정을 통해 전국을 누비며 악착같이 버티고 또 버텼다. 이동 거리로 인한 체력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으나 광주는 순위표 중위권에 자리하며 성공적인 전반기를 보냈다. 그리고 이제 광주는 좀 더 편안한 안방에서 여름을 보낼 준비를 마쳤다.

올 시즌 광주는 리그 23경기를 치렀는데, 홈에서 치른 경기가 8경기밖에 없다. 7월 열렸던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로 인해 불가피하게 원정 경기만을 다녔다. 선수단 또한 목포 국제축구센터에 짐을 풀었다. 광주는 지난 시즌 승격의 꿈을 이루고 팬들의 관심을 얻었으나 실질적으로 광주 축구를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 5월 3일(일) 9라운드가 돼서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의 첫 홈 경기를 치르긴 했으나 5연전을 치른 뒤, 곧바로 원정 10연전에 나섰다.

축구에서 홈 경기는 경기 영향력에 상당한 지분을 차지한다. 경기장 환경, 분위기 등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도 좌지우지되고 상대보다 익숙한 잔디 상태에서 뛰는 건 '홈 이점'의 정의를 뒷받침해준다. 특히 든든

한 지역 팬들의 힘은 선수들의 열정과 자존심을 일깨우는 부분이다. 즉, 광주는 광주 팬들의 응원과 힘이 있어야만 더 성장할 수 있다. 조금의 관심도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는 부분이다.

광주는 이제 다른 구단들과 마찬가지로 홈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광주는 지난 시즌에 높은 홈 승률을 자랑했다. 8승 6무 4패, 승률 61.1%로 승격하는 데 확실한 밑거름을 만들었다. 올해는 지난해만큼의 성적은 내지 못하고 있다. 2승 3무 3패 승률 43.8%다. 리그 6위까지에 주어지는 상위 스플릿 진출을 위해선 홈 승률을 높여야 한다.

마침, 광주는 안방으로 돌아와 홈 6연전을 치른다. 12일(수) 전남 드래곤즈전을 시작으로 19일(수) 대전 시티즌, 23일(일) 제주 유나이티드, 29일(토) 울산 현대, 9월 9일(수) 인천 유나이티드, 9월 13일(일) 부산 아이파크와 차례로 격돌한다. 지난해에 이어 기적의 드라마를 재현해내기 위해선 이 홈 6연전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행스러운 점은 광주가 지옥의 일정을 견뎌내고 돌아온 만큼 팬들의 응원을 뒤에 업고 안방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이다.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경기하기에 기대하는 바도 높다.



3년 만에 국가대표 배출한 광주와 이찬동의 동행



광주 FC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배출됐다. 프로 2년 차 수비형 미드필더 이찬동이 그 주인공이다. 무려 3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광주는 총 2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해냈다. 2011년에 공격수 박기동과 2012년 미드필더 이승기다. 이후 한동안 끊겼던 광주와 국가대표팀과의 끈을 이찬동이 다시 묶었다.

지난 7월 20일(월) 국가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 슈틸리케 감독은 1일(토)부터 열린 2015년 동아시아컵에 참가할 23인의 최종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 이찬동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생애 첫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슈틸리케 감독은 “다른 선수와 고민했는데 최근 소속팀에서 활약이 좋았던 이찬동을 선발했다”며 이찬동의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즉, 광주에서의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이찬동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또, 그의 기량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최종명단이 발표된 이후 이찬동은 깜짝 발탁의 주인공이 되며 언론의 집중을 받았다. 하지만 이찬동은 이미 광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성장해있었고, 보여주고 있는 기량 또한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도 문제없을 정도로 좋았다. 특히 1993년생의 불과한 그의 나이를 보면 아직도 성장 중이라는 사실에 광주는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이찬동은 광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막 두 번째 프로 시즌을 맞이했지만, 광주에서 이룬 성과가 대단하다. 지난해인 2014년 프로 데뷔 시즌에서 33경기에 출전해 1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격을 주도했다. 눈에 보이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으나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신성인하며 자신의 역할 이상을 해줬다. 포백 수비진 앞에 1차 저지선을 구성해 거친 몸싸움, 몸을 아끼지 않는 태클 등의 투혼도 보였다.

프로 2년 차를 보내고 있는 올해에도 줄곧 중원 한 자리는 이찬동의 몫이었다. 이를 눈여겨본 올림픽대표팀의 사령탑 신태용 감독은 곧장 이찬동을 호출하며 중용하기 시작했다. 벌써 올림픽대표팀에서도 4경기를 소화해 1골을 기록했다. 계단을 하나씩 오르며 단계를 밟고 있는 이찬동은 자신의 최대 꿈이자 목표인 국가대표팀의 유니폼까지 입었다. 그야말로 폭풍 성장이다.

이찬동의 플레이를 보면 싸움닭이 연상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팀의 굵은일을 도맡고 전투적인 플레이를 즐긴다. 국가대표를 향하고 있는 이찬동은 광주에서 보여준 자신의 플레이를 그대로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서 자만하지 않겠다.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 항상 모든 면에서 절실하고, 간절하게 임하는 게 목표이자 그게 내 힘이다!”

그가
광주에
필요한
유



이찬동

LEE CHAN DONG



No.40 | MF

1993.01.10

183cm, 83kg

K리그 통산

53경기 1골

팀 내 각종 기록 선두!

23ROUND 기준



1위

패스 성공률



1033회 시도
786회 성공

볼 차단

60회

가로채기

9회

파울

37회

피 파울*

43회

* 파울 당한 횟수

이외 상위권 기록



2위



3위

태클 성공

성공률 81.2%

걸어내기

45회

가슴에 태극마크까지 단 싸움닭

올림픽대표팀

4경기 1골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VS 튀니지

2-0

승

15.6.14

친선경기
VS 프랑스

1-1

무

15.6.11

1골

AFC 챔피언십 예선
VS 인도네시아

4-0

승

15.3.31

AFC 챔피언십 예선
VS 동티모르

3-0

승

15.3.29



A매치 데뷔 예정

GK 최봉진의 합류, 골키퍼 경쟁에 불 지폈다

최봉진

CHOE BONG JIN

No.41

1992. 04. 06

193cm / 83kg



광주 FC는 지난 7월 25일(토) 포항 스틸야드에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23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 경기를 치렀다. 결과는 0-0 무승부였다. 포항을 상대로 역대 통산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아쉬움이 클 뻔했지만, 광주는 신예 선수의 등장으로 설렘을 안고 안방으로 돌아가게 됐다. 기대감을 높인 이 주인공은 이제 막 광주 유니폼을 입은 골키퍼 최봉진이다.

최봉진은 7월 게시된 여름 이적시장에서 광주 남기일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7월 11일(토) K리그 챌린지 경남 FC에서 광주로 합류했다. 처음에는 의아한 이적이었다. 최봉진은 올 시즌 자유계약을 통해 경남에 입단한 신인 골키퍼였다. 당장 실전 투입이 가능한 선수는 아니었다. 중앙대학교 시절 '거미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경남에선 단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포항전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최봉진은 반 시즌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한 설움을 토해냈다. 경기 내내 슈퍼세이브를 펼치며 수비진에 힘을 실어줬다. 염려하던 실전 감각도 문제 되지 않았다. 적절한 상황 판단 능력과 빠른 수발력을 이용한 세이브로 무실점 경기를 펼쳤다. 데뷔전 무실점이었다. 골키퍼로서는 최고의 성과였다. 그것도 상대가 출중한 공격수들이 즐비한 포항이었다. 최봉진은 자신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을 보냈다.

최봉진은 포항전에서 결정적인 5차례의 놀라운 선방을 펼쳤다. 전반 32분 김승대의 헤딩 슈팅을 막아낸 것부터 시작해 후반 3분 왼쪽 측면에서 넘어온 프리킥을 다리도 쳐냈다. 이어, 포항의 공세가 매섭던 후반 16분 김원일의 헤딩 슈팅 또한 감각적인 슈퍼세이브를 펼쳤다. 후반 21분에도 김대호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잡아냈다. 압권은 후반 40분이었다. 포항이 절묘한 스루패스를 통해 고무열이 단독찬스를 맞이하는 듯했다. 하지만 최봉진이 빠른 판단력으로 페널티박스 끝 부근까지 뛰쳐나와 공을 걷어냈다.

최봉진의 원맨쇼나 다름없었다. 193cm의 건장한 신체조건을 앞세워 공중볼 처리 능력에서 장점을 나타냈고, 큰 키에 이어 날렵한 민첩성까지 소유했다. 경기를 거듭한다면 충분히 더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남기일 감독도 최봉진의 활약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그를 치켜세웠다.

최봉진의 활약은 큰 의미가 있다. 그의 등장으로 광주의 골키퍼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사실, 광주는 시즌 내내 골키퍼 포지션에서 잦은 실수가 잦아 약점으로 지적됐다. 전반기 막판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승점을 잃은 아쉬움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1992년생의 골키퍼 최봉진이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어필하며 선배 권정혁과 제종현 골키퍼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대될 수밖에 없는 광주의 브라질 삼각편대



NO.10 **파비오**
NEVES FLORENTINO FABIO

FW 1986. 10. 04
171cm / 66kg



NO.36 **까시아노**
DIAS MOREIRA CASSIANO

FW 1989. 06. 16
184cm / 79kg



NO.38 **다니엘**
OLIVEIRA MOREIRA DANIEL

FW 1991. 03. 14
175cm / 69kg

23경기 23득점. 광주 FC의 전반기 득점 기록이다. 경기당 1득점씩은 기록했으나 만족할 만한 공격력은 아니었다. 광주보다 득점을 적게 한 구단은 인천 유나이티드, 부산 아이파크, 대전 시티즌밖에 없다. 결론은 골이 더 터져야 순위를 올릴 수 있다. 득점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삼각편대가 뭉친다. 광주의 브라질 출신 외국인 공격수들인 파비오, 까시아노, 다니엘이 반격의 후반기를 준비 중이다.

광주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외국인 공격수 수혈에 힘썼다. 올해 초부터 함께했던 장신 공격수 질베르토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일찌감치 대체자 찾기에 힘썼다. 그나마 지난 시즌 광주에서 승격을 함께한 파비오가 있어 다행이었다.

광주는 먼저 최전방 공격수인 까시아노를 영입했다. 까시아노는 탄탄한 체격 조건과 함께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실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격진영에서 힘있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입단 때부터 까시아노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뒤이어 광주는 다니엘을 영입해 선수 보강을 마무리했다. 다니엘은 측면 공격수로 순간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와 슈팅력을 보유한 선수다. 왕성한 활동량과 측면 공격을 추구하는 광주 축구에 적합한 스타일을 갖췄다.

이들의 합류로 광주는 브라질 출신 외국인 공격수 삼각편대를 구축했다. 약점인 골 결정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쓸쓸한 이적시장의 행보였다. 기대감은 높다. 이미 까시아노는 광주에서의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 23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합격점을 받았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으나 공을 소유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강한 몸싸움과 기술적인 능력도 갖췄다는 걸 증명했다. 특히 전방부터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역습을 주도한 적극성까지 보이며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다니엘 또한 출전하지는 못했으나 교체 명단에 포함되어 후반기 출격 준비를 눈앞에 뒀다.

그동안 광주는 외국인 선수의 효과를 톡톡히 보지 못했다. 2013시즌 브라질 출신 공격수 루시오가 13골 10도움을 올린 것과 비교해 건줄 공격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국내 적응을 마친 파비오를 필두로 까시아노, 다니엘의 브라질 삼각 편대가 처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월부터 시작되는 공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하반기 시작 전까지 약 2주 동안의 휴식기가 있었던 점도 득이다. 호흡과 조직력을 맞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어 이들 브라질 삼각편대에 거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5시즌 광주 FC 선수 명단

 남기일 감독	 장기봉 수석코치	 기우성 GK코치	 길레미 피지컬 코치	 이준영 주치의	 1 GK 제종현	 21 GK 주정우	 31 GK 권정혁
 41 GK 최봉진	 3 DF 김영빈	 4 DF 정준연	 6 DF 오도현	 14 DF 이으뜸	 17 DF 이종민	 18 DF 권영호	 20 DF 송성범
 26 DF 안영규	 29 DF 마철준	 33 DF 정호정	 7 MF 여름	 13 MF 허재녕	 16 MF 송승민	 19 MF 박선홍	 22 MF 조용태
 28 MF 김익신	 30 MF 주현우	 37 MF 박일권	 40 MF 이찬동	 5 FW 임선영	 10 FW 파비오	 11 FW 김호남	 12 FW 김성현
 36 FW 까시아노	 38 FW 다니엘						

2015시즌 홈 경기 일정

08월 19일(수) 19:00		대전 시티즌	09월 13일(일) 14:00		부산 아이파크
08월 23일(일) 19:00		제주 유나이티드	09월 23일(수) 19:00		전북 현대
08월 29일(토) 19:00		울산 현대	10월 04일(일) 14:00		수원 삼성
09월 09일(수) 19:00		인천 유나이티드			

광주FC SNS



광주FC 홈페이지

www.gwangjufc.com



광주FC 트위터

@GWANGJU_FC



광주FC 페이스북

/gwangjufc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 중흥S-클래스 | 호반건설 | 광주상공회의소 | 보광건설(주) | 골드클래스 | Hyundai Oilbank | KSPO | 보해양조주식회사 | 광주수완병원 | KBOY & BALANCE | 청연의료재단 | 밝은안과21병원 | Arbol | 매직콘 | 황슬촌 | my NINE | Vitamin House | 게토레이 | 카포상사(주) | 조선대학교병원 | 광주에디션 | 사랑방 | FRANK JUICE | 광주패밀리랜드 | 중흥 골드스파&리조트 | CGV | VIPS | 윤암한방병원 | 중흥오투스파 | CMB광주방송 | M55M

발행일 2015년 08월 08일 / 발행처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풍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2층

전화 (062)373-7733 / 홈페이지 <http://www.gwangjufc.com> / 기사 더스포츠 허회원 기자 / 디자인 더스포츠(www.thesports.co)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